



거짓말 거짓말

오재호/한국부부문화연구원장, KBS-2R “밤을 잊은 그대에게” MC

결 혼식을 올린지 두 달째 되는 신혼부부가 치열하게 대결합니다.

“뉴질랜드로 신혼여행을 10박 11일로 갔었는데 신랑이란 사람이 단 한번도 잠자리를 안 갖는 거예요.” 신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신랑이 반격을 가합니다.

“아닙니다. 순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고의로 피했습니다. 이 여자는요 소주를 한 병도 아니고 앉은자리에서 세 병이나 마시는 여잡니다. 얼마나 독하다고요.”

쌍방간에 주장이 지나치게 격렬하다보니 이혼은 쉽게 성립되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이혼재판은 거짓말로 뒤엉켜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주장이 강하다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나칠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그리고 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재판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빈”대학교 사회학부 교수인 <피터 슈피그니츠>박사의 “거짓말에 대한 학술적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가 각각 거짓말을 하고 있는 취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자신의 체중을 말할 때 약 80%가 거짓말을 한답니다. 보통 4킬로그램에서 34킬로그램까지 속여서 말한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이야기할 때 73%가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척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나이를 말할 때 66%가 거짓말로 대답한답니다.

말하자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자들은 자신이 날씬한 몸매이길 바라고 있고 성적인 욕구를 전혀

느끼고 있지 않는 성녀로 착각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남자들의 거짓말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첫째 남자들은 사랑의 서약에는 85%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즉흥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남자들의 사랑고백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남자들은 자신의 수입을 말할 때 78%가 거짓말을 합니다. 즉 자신을 보다 크게 그리고 강하게 보이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일종의 과시 욕입니다. 셋째로 72%가 자신의 경험담을 과장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귀담아 들

어야 할 대목은 이 부분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경험에 관해서는 거의 93%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자주 하는 이유는 자신이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독현상입니다. 그 거짓말이 우리 부부의 혼인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부부생활은 보다 솔직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하는 거짓말 분야도 다릅니다. 남자는 금융, 과학, 정치, 국방 쪽에 더욱 강렬한 거짓말 욕구가 발동하고 여자는 교육, 육아, 가정, 친구 분야에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치료해줄 의사는 없습니다. 있다면 자기 자신뿐입니다.

만약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는 “나 지금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고 싶을 정도다”라고 말하십시오. 특별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PPFK

